

금남로에서

정권 교체의 조건-‘협업’과 ‘연대’



박치경 수석 논설위원

삼복염천(三伏炎天)에도 대권의 꿈은 쫓겨가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다. 손학규-박원순-안희정 등은 정세를 살피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부성 전 대표가 다음 달 해남 땅끝에서 배낭 민선투어를 시작할 예정인데 8·9 전대(전당대회)가 끝나면 대권 가도의 서막이 오를 전망이다.

20년 미리 내다본 DJ

김대중은 보수-총정과의 ‘협력’을 통해 이념과 지역을 ‘보완’함으로써 39만 표 차로 정권 교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요즘 우리 정치권에 뜨고 있는 ‘협치’를 이미 19년 전에 간파한 셈이니 과연 선지자 답다.

은편칼럼



박행순 카트만두대 객원교수·전남대 명예교수

네팔 한인 사회의 몇몇 칠순들이 의기투합하여 7박 8일 일정으로 ABC(Annapurna Base Camp) 산행을 하기로 하였다. 최고 연장자가 76세, 평균 연령이 72세였다. 시간을 아끼고 힘을 비축하기 위하여 포카리까지 비행기로 가려고 새벽에 카트만두 공항에 나왔으나 날씨가 나쁘다며 계속 지연되는 항공편을 포기하고 버스를 타고 밤중에 포카리에 도착했다.

기고



이현형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차별을 금지”하는 예시적인 내용들이 있다.

ABC 산행에서 인생의 ABC를 배운다

(Annapurna Base Camp)

걷는데 좀 오르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기를 반복하니 4130m의 ABC가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첫날 오후에 티베트인이 운영하는 루트에 들었는데 산술 좋은 청년이 “어머니, 어머니”하면서 우리를 반겼다. 처음 네팔에 올 때 어떤 이들이 “네팔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일 것이라고 했던 생각이 난다. 그러나 카트만두는 대기오염도가 세계에서 둘 째 가라면 서러울 것 같고 히말라야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석회수여서 필터로 거르고 끓여 먹어야 하니 산에서 마시는 물은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만 했다.

고 운동화를 신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짐꾼의 삶을 시작할 것 같은 소년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상쾌한 공기, 우거진 숲, 지저귀는 새소리, 바위에서 떨어지는 폭포, 무리 지어 피어 있는 야생화, 꺾아지른 듯 거대한 실산들 사이로 흐르는 계곡 물소리, 산길을 뛰어다니는 염소때, 방울을 딸랑거리며 짐을 나르는 당나귀들, 세계 각국에서 온 남녀노소, 그리고 ‘도꼬’라는 대바구니에 띠를 둘러 등에 지고 이마로 지탱하며 걷는 배달꾼들의 짐 속에 보이는 신라면의 산행에 즐거움을 더했다. 이 도꼬는 때로 기진맥진한 등산객을 실어 나르는 ‘히말라야 택시’라고 했다.

들 중앙에 위치한다. 카트만두 대학 숙소에서 멀리 보이던 물고기 꼬리라는 뜻의 마차푸차레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ABC에서 정면으로 보는 마차푸차레는 삼각의 등반이탈에 깔걸이 두개가 대칭을 이룬 왕좌처럼 위엄을 자랑한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뒤흠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뒤흠 높다 하더라’는 양사언의 시조는 바로 세계의 지붕, 네팔의 히말라야 설산을 두고 읊은 것 같다. 네팔에 살면 이런저런 재미가 있는데 이산행이 단연 최고였고 가장 교훈적인 경험이었다. 산길은 오르내림의 연속이었고 이는 삶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부침(浮沈)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부터 개선해야

을 약간 웃돌고 상용직 3분의 1수준에 머문다. 기간제 등 근로자와 엄격한 개념은 다르나 이른바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 등 차별은 개선되어야 한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7년 7월 1부터 기간제·단시간, 또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직접적으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간접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양용방지를, 사회적으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이하 “임금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경우이다.

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자)들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 6개월 이내에 차별시정 신청을 근로자의 근무지(근무지가 이동된 경우 마지막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신청하면 된다. 6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지노위 판정에 불복시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명령서(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장 규사 또는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통상근로자·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근로자)과 비교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파견근로자(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

과된다. 차별적 처우의 내용은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관행으로 근로조건화 된 것, 후생 및 복지 등도 해당된다. 차별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합리적 이유라면 채용조건, 기준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또한 직무,능력,기능,기술,자격,경력,학력,근속년수,책임의 정도,업무의 범위,권한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중식대와 통근비는 실비반상 내지 복리후생적인 목적이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를 차별하여 지급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도 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확인에 따라 판단이 된다.

社說

지역 현안사업 정부 무관심에 애타는 광주

요즘 광주의 일부 현안사업이 지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주된 이유는 정부가 사업 추진을 결정해 놓고도 예산을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그나마 책정된 사업비도 대폭 줄이려 하는 등 나 몰라라 하는 탓이 크다. 이대로 갔다가는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내년 예산이 문제다. 문화전당 예산은 최근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402억 원만 인정돼 사실상 반 토막 났다. 올해 예산 724억 원보다 322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더욱이 관련 예산을 챙기기 위해 소관 부처나 국회를 상대로 뛰어다닐 땐 문화전당장 지리도 비어 있다. 현재 직무대리 체제인 전당장은 지난 3월 시작한 공개 모집에서 적격자를 뽑지 못하고 재공모해 후보 2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하지만 최종 선임은 9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활발한 예산 확보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주된 이유는 정부가 사업 추진을 결정해 놓고도 예산을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그나마 책정된 사업비도 대폭 줄이려 하는 등 나 몰라라 하는 탓이 크다. 이대로 갔다가는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내년 예산이 문제다. 문화전당 예산은 최근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402억 원만 인정돼 사실상 반 토막 났다. 올해 예산 724억 원보다 322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더욱이 관련 예산을 챙기기 위해 소관 부처나 국회를 상대로 뛰어다닐 땐 문화전당장 지리도 비어 있다. 현재 직무대리 체제인 전당장은 지난 3월 시작한 공개 모집에서 적격자를 뽑지 못하고 재공모해 후보 2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하지만 최종 선임은 9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활발한 예산 확보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장동력 ‘남도문예 르네상스’를 주목한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2018년 이후까지 모두 2120억 원을 들여 남도의 우수한 문화예술 유산을 ‘웰빙과 힐링’이라는 시대 조류에 맞춰 재조명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육성 대상 자원은 서화·전통정원·종가문화·바둑·문학·다도·도자·판각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육성 대상 자원은 서화·전통정원·종가문화·바둑·문학·다도·도자·판각 등 12개 분야다. 타 지역과 견줘 비교 우위에 있는 자원으로, 새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 원형이라고 한다. ‘남도문예 르네상스’를 선도할 4대 사업은 국제 수목화 비엔날레 개최,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 종가문화 활성화, 국내 최초 바둑박물관 건립 등이다. 핵심 사업으로 문화예술 아카데미 및 창작교류센터와 전남 명품공예 창작소 설립과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사업 등이 있으며 국화호남진흥원 설립을 비롯한 황해교류역사관 건립, 국제음악

학교 설립, 국립남종화역사관 건립 등의 연관사업도 추진된다. ‘문화의 세기’를 맞아 전남도에서 가치가 사장된 문화자원에 주목하고 이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황해교류역사관, 바둑박물관, 국제음식학교 등은 신선하고 새롭다. 다만, 당장은 굵직한 사업인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기에 수익 창출 등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욕을 앞세워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 재정 압박을 겪는 선례를 반복하게 봐 왔기 때문이다.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의 성패는 국가 예산 지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 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충분조건이다. 무엇보다 ‘남도문예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단체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명실상부한 전남 미래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

Advertisement for 'Insan-an Special Exhibition' (신안산 특별전)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ad features the text '無等鼓' and '신안산 특별전' and include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exhibition, mentioning the artist's backgroun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work. It also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useum.

Advertisement for 'The Kwangju Ilbo' (光州日報). The ad includes the newspaper's name in both Korean and English, its founding date (1952),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and circulation. It also mentions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providing timely news and high-quality content.